

조지아, '기후변화·재해에 강한 도시 캠페인' 가입



-텔라비(Telavi)의 시장 Platon Kalmakhelidze(좌측에서 두 번째)은 그의 도시를 회복력 있는 도시의 선두에 두었다. (사진:UNISDR)

조지아의 고대도시 중 하나인 텔라비는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에 가입하는 나라의 첫 지방자치체가 되었다.

텔라비의 시장 Platon Kalmakhelidze는 발전한 UNISDR의 글로벌 캠페인에 동참하는 것이 2012년 7월 강한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와 같은 피해손실의 반복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목적은 자연재해와 재난에 대해 회복력이 강한 도시가 되어 2012년의 태풍피해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목표는 이 캠페인에 참여함으로써 이 도시의 방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라고 시장 Kalmakhelidze는 전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자연재해를 직면하고 그 재해로부터 오는 손실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로, 텔라비는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생태학적 자산과 문화 유산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방재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정책영역에 관해 다른 도시들로부터 배우고,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길 열망합니다. 또한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도시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방재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북돋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텔라비는 조지아 동부 지방, 카케티(Kakheti)의 행정수도이다. 20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문화 유산과 70종 이상의 와인을 생산하는 포도원으로 유명하다.

2012년의 우박, 강풍 그리고 갑작스런 홍수와 결합한 태풍은 텔라비에 123만 달러의 직접적인 경

제 손실을 일으켰다. 2만가구가 피해를 입었고 5천255개의 집이 손상되었으며 수도, 가스 및 전기 분배 시스템이 중단되었고 수도 시스템을 수리하는 데에만 2백만 달러의 비용이 소모되었다.

조지아가 방재능력을 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위험 요소들을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홍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인데, 이는 바위가 많은 산악지형으로 인해 피해를 더 악화시킨다.

그래서 강 유역관리 강화, 지역의 배수 시스템 유지 그리고 지역 사회기반시설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들이 조지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 센다이에서 열리는 재해감소를 위한 세 번째 유엔국제회의에서 채택 할 2015년 체제의 초안으로, 텔라비와 같이 도시의 지역역량을 복돋는 것이 재해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 노력의 핵심 요소라고 인정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은 2,4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들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재난 위험을 줄이기 위해 10가지 필수방안을 캠페인의 가이드로써 실행하고 있다.

2014/12/05

By Andy McElroy